

Tesla Model Y

L6,499만원출고 결정

핵심 결론

- 01 6인승을 실제로 쓰고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조건부 출고가 우세**합니다.
- 02 계약가는 현재 확인 가격보다 **800만원 낮고**, 현행 Model Y 롱레인지 AWD보다도 200만원 낮습니다.
- 03 다만 할인 때문에 사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최종 청구서·보조금·VIN·실차**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800만원을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6,499만원짜리 6인승 전기 SUV를 실제 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격 잠금의 이점과 불필요한 대형차의 비용을 분리해 판단했습니다.

260803 · 최대 심층 · 구매 판단

2026.08.03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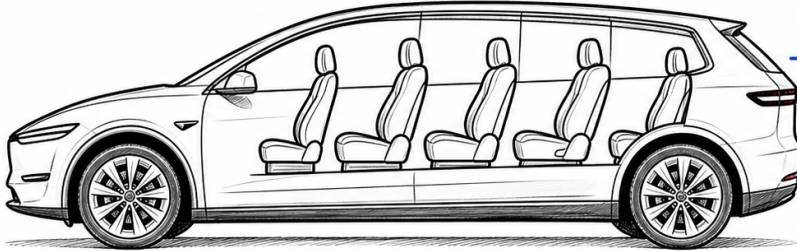
한국 공식·공공 우선 · 가격 타임라인·실사용·반대근거 교차 확인



Tesla Model Y L 공식 제품사진 · Tesla China

공식 제조사 제품 페이지 에셋 · 한국 출고차의 색상·휠·세부 사양은 최종 VIN과 계약서로 확인

6,499만원 → 7,299만원
800만원 가격 잠금



- ☒ 6인승 실사용
- ☒ 3년 이상 보유
- ☒ 현금흐름 안전

출고

- ☐ 1~2인 위주
- ☐ 할인 때문에 구매

미출고

최종 청구서

VIN·옵션

실차 검수

AI 생성 인포그래픽 · 공식 제품
이미지 아님

RM 리포트 모드와 Tesla 공식 워드마크 포함 · 가격 타임라인, 6인승 실사용, 3년 보유, 현금흐름, 최종 청구서
· VIN·실차 검수 시각화

한 문장 판단: ‘필요했던 6인승’이면 출고, ‘싸 보여서 생긴 욕구’면 미출고

가격 우위는 강하지만, 사용 목적·현금흐름·품질 검수라는 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 권고: 조건부 출고

다음 네 조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① 6인승·2열 캡틴체어를 실제 사용, ② 3년 이상 보유, ③ 현금흐름에 무리 없음, ④ 인도 차량과 최종 청구서가 계약 내용과 일치.

800만원

6,499만원 계약가와 7,299만원 현행 확인가 차이

약 11.0%

현행가 대비 계약가 할인 효과

-200만원

현행 Model Y 롱레인지 AWD 6,699만원 대비

중요: 위 800만원은 현금 수익이 아니라 '현재 같은 차를 새로 살 때보다 적게 내는 금액'입니다. 필요 없는 차를 6,499만원에 사는 순간, 할인은 절약이 아니라 지출의 이유가 됩니다.

가격 잠금은 강력하지만, 진짜 대안은 '다른 6인승'보다 '5인승으로 충분한가'입니다

2026년 7월 한국 가격 보도와 4월 계약가를 같은 차량가격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옵션·보험·등록비·지역 보조금은 별도입니다.

선택지	확인 가격	6,499만원 대비	얻는 것	포기하는 것·주의
계약 Model Y L	6,499만원	기준	6인승, 장축, 2열 독립좌석, 가변 댐핑	큰 차체, 높은 절대 지출, 가격 변동·감가 위험
현행 Model Y L	7,299만원	+800만원	동일 차종을 현재 주문	계약가를 포기하면 되돌리기 어려움
Model Y LR AWD	6,699만원	+200만원	5인승·짧은 차체·상대적으로 가벼움	계약 Y L보다 오히려 비싸고 3열 없음
Model Y RWD	4,999만원	-1,500만원	낮은 구매비·5인승 실용성	AWD·장축·6인승·캡틴체어 포기

선택지	확인 가격	6,499만원 대비	얻는 것	포기하는 것·주의
EV9·아이오닉 9	트림·혜택별 재건적 필요	미확정	국내 서비스망, 더 전통적인 3열 SUV 패키징 비교	실구매가·옵션·납기·충전 생태계를 동일 견적으로 맞춰야 함

가격은 기사에서 확인된 기본 차량가입니다. 도색·휠·FSD, 탁송·등록·보험, 보조금 소진 여부에 따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집니다.

출고와 미출고를 가르는 네 가지 질문

‘예/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격이 아니라 사용 장면부터 적으세요.

출고 쪽

6석을 월 1~2회 이상 쓴다

부모님·자녀·동행인을 태우고 2열 독립좌석과 3열이 실제 일정에 등장한다면 Y L의 차별점이 비용으로 환산됩니다.

출고 쪽

3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다

등록 직후 중고차 전환 비용과 가격 변동을 견디려면 단기 되팔기보다 장기 사용이 맞습니다.

미출고 쪽

대부분 1~2명만 탄다

5인승 Model Y RWD와의 1,500만원 차이는 '할인받은 800만원'보다 큰 비용입니다.

미출고 쪽

할부·현금흐름이 부담된다

차량을 산 뒤 비상자금이 6개월치 생활비 아래로 떨어지거나 고금리 할부가 필요하면 가격 잠금보다 유동성이 우선입니다.

미출고 쪽

주차·3열을 검증하지 못했다

전장 4,976mm와 3열 자세·승하차·3열 사용 중 짐 공간은 표 수치가 아니라 집 주차장과 실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고 쪽

최종 문서와 차량이 모두 통과한다

6,499만원 유지, 보조금 처리, VIN·옵션·생산 정보, 인도 품질이 계약과 일치해야 가격 우위가 실제 이익이 됩니다.

가격 타임라인: 계약가는 현재보다 800만원 낮습니다

한국 판매 가격의 빠른 변동은 출고 매력과 장기 감가 위험을 동시에 키웁니다.

- 1. **2026.04.03:** 국내 출시 기본가 6,499만원. 한국 인증 관련 보도는 88.2kWh, 상온 553km·저온 454km, 국고보조금 약 21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 2. **2026.04.10:** 6,999만원으로 500만원 인상.
- 3. **2026.07:** 7,299만원으로 다시 300만원 인상. Tesla는 7월 1일 이전 예약자가 기존 옵션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인상 전 가격을 적용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4. **2026.08.03 판단:** 6,499만원 계약은 현재 확인가보다 800만원 낮아 약 11.0%의 가격 완충이 있습니다.

양면성: 지금은 계약자에게 유리하지만, Tesla의 잦은 가격 조정은 향후 인하 때 중고가와 심리적 만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보다 싸다'와 '미래 감가가 적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품 적합성: Y L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객실 패키징에 있습니다

중국·호주 실차 근거는 한국형과 인증 수치가 다를 수 있어, 구조·사용성 판단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항목	강점	반대 근거·검수 포인트
2열	독립형 캡틴체어, 열선·통풍, 장거리 승객 편의	카시트 상부 고정 방식과 3열 진입 동선을 실제 장착 상태로 확인
3열	필요할 때 6인 탑승 가능, 전용 공조·열선	성인 장거리에서는 높은 바닥·허벅지 지지·머리 공간 타협 지적
주행	가변 댐핑, AWD, 250kW급 최대 급속충전	실제 충전곡선·겨울 효율·타이어 비용은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짐
차체	축거 3,040mm로 실내 공간 확대	전장 4,976mm. 지하주차장 회전·기계식 제한·평행주차를 직접 확인
적재	좌석 폴딩 시 큰 최대 공간	3열을 세운 상태의 유모차·캐리어 적재가 핵심이며 최대 적재량 수치로 대체 불가

금융·총비용: 800만원 할인보다 6,499만원의 자금비용을 먼저 보세요

아래 할부는 비교용 예시이며 실제 금융상품 견적이 아닙니다.

약 83.8만원/월

차값 70%를 60개월·연 4% 원리금균등으로 가정

약 88.0만원/월

같은 원금, 연 6% 가정

약 92.2만원/월

같은 원금, 연 8% 가정

70%인 45,493,000원을 빌릴 경우 총이자율은 연 4% 약 478만원, 6% 약 728만원, 8% 약 985만원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계약가 우위 800만원의 상당 부분이 금융비용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 판단비용 = 차량가 - 확정 보조금 + 등록·보험 + 금융비용 + 충전·타이어·정비 - 보유기간 후 중고가

- **취득세:** 전기차 감면과 과세표준을 적용한 예비 계산은 약 274만원이지만, 6인승 분류·옵션·2026년 감면 적용은 등록 대행 견적과 관할 지자체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 **보조금:** 기사상 국고 210만원 수준입니다. 지역 보조금 잔액·대상 확정·출고 순서가 최종 청구서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 VIN 기준 자차 포함 실제 견적을 2개 이상 받으세요. 차값보다 수리비·부품 대기와 자기부담금이 체감비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대안의 기회비용:** RWD와의 1,500만원 차액을 연 4%로 5년 운용하면 단순 복리 차이는 약 325만원입니다. 3열을 쓰지 않는다면 이 차액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결론을 바꾸는 변수를 가격·사용·현금흐름으로 나눴습니다.

낙관

가족용 6인승으로 오래 사용

월 2회 이상 6인 탑승, 자가 충전, 5년 보유. 계약가 우위와 객실 활용이 모두 살아납니다. 출고 권고가 강합니다.

기준

5인 위주·가끔 6인 탑승

사용성은 맞지만 절대 지출이 큼니다. 현금·저금리 조달과 실차 검수 통과 시 조건부 출고입니다.

보수

1~2인 위주·단기 보유

할인 때문에 구매하고 1~2년 내 매각할 가능성이 큼니다. 등록·보험·감가·가격 인하 위험이 커 미출고가 낮습니다.

인도 전 48시간 체크리스트

가격 우위를 실제 권리와 정상 차량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1. **문서:** Tesla 앱과 최종 주문계약서·청구서에 기본 차량가격 6,499만원이 유지되는지 캡처합니다.
2. **지원금:** 국고·지자체 보조금 확정액, 소진 시 책임, 출고일 변경 시 처리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 **VIN:** 트림·좌석·휠·색상·옵션·생산월과 최종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외관:** 도장 이색·찍힘·패널 단차·유리 흠집·램프 습기·휠·타이어 손상을 밝은 곳에서 촬영합니다.
5. **기능:** 전 좌석 전동·열선·통풍, 2·3열 폴딩, 공조, 화면, 카메라, 충전구, 키·앱 연결을 시험합니다.
6. **생활 검증:** 집 주차장에 4,976mm 차체가 들어가는지, 카시트·유모차·캐리어가 3열 사용 상태에서 맞는지 확인합니다.
7. **인수 기준:** 중대한 손상·사양 불일치·문서 불일치 때 서명 전에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8. **최종 질문:** '오늘 처음 이 차를 6,499만원에 봐어도 샀을까?'가 아니오라면 미출고가 맞습니다.

한계와 최종 판단

확정되지 않은 개인 조건과 계약 문서는 결론에서 분리했습니다.

- 6,499만원은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가이며, 실제 최종 청구서·옵션·택송·보조금 반영액은 보고서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Tesla 한국 공식 구성기는 조사 환경에서 접근 차단되어, 현행 7,299만원은 2026년 7월 복수 한국 언론의 Tesla Korea 가격 확인을 사용했습니다.
- 한국 인증 88.2kWh·상은 553km·저은 454km와 국고 210만원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인용한 한국 기사로 확인했으며, 출고일의 공식 목록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 취득세·지역 보조금·보험·할부는 거주지, 옵션, 개인 신용과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시 계산은 의사결정용 예시입니다.
- 중국·호주 실측은 차체 구조와 사용성의 반대근거로만 썼고 한국 인증 수치와 직접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공개 표본에서는 Model Y L 고유의 대규모 인도품질 결함이나 장기 AS 지연 패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결함의 증명이 아니며, 출시 초기라 현물 검수와 주소지 기준 서비스 예약 가능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권고

6인승 필요가 이미 있었고 현금흐름이 안전하다면 출고하십시오. 800만원의 가격

잠금과 현행 Model Y LR AWD보다 200만원 낮은 가격은 드문 우위입니다. 반대로 3열을 거의 쓰지 않거나 '취소하면 손해 같아서' 사는 것이라면 미출고하십시오. 이때 1,500만원 저렴한 Model Y RWD 또는 차량 구매 연기가 더 큰 절약입니다.

인터넷·언론 반응

X·Threads·블로그·커뮤니티·뉴스에서 실제로 확인한 의견을 긍정·우려·조건부 평가로 나눴습니다.

기글하드웨어 댓글 · 엇갈림 낄낄 외 · 2026.04.03

‘EV9보다 작지만 경쟁력’과 쿠페형 공간 우려

공개 댓글 표본에서는 “EV9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저 정도 가격이면 경쟁력”이라는 평가와 “쿠페형이라 EV9가 실내는 더 편할 것”이라는 반론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댓글 4개의 소표본이며 시승 평가는 아닙니다.

[게시물·댓글 보기](#)

쿠키뉴스 · 비판 김수지 · 2026.04.10

출시 일주일 만의 500만원 인상

6,499만원에서 6,999만원으로 빠르게 오른 가격과 수요·환율·보조금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초기 계약자의 가격 잠금에는 유리하지만 가격 정책 신뢰에는 부정적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한국경제 · 비판 최수진 · 2026.07.15

7,299만원 재인상과 ‘고무줄 가격’ 우려

7월 Model Y L이 6,999만원에서 7,299만원으로 300만원 더 올랐다고 확인하면서 잦은 가격 변경이 소비자 혼란과 보조금·감가 위험을 키운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네이버 실차 착석 · 조건부 긍정 알고타 · 2026.05.16

2열은 편안하지만 큰 체격·3열 자세는 확인 필요

매장에서 1~3열을 직접 앉아본 공개 후기는 2열 캡틴시트의 편안함과 예상보다 나은 3열 공간을 장점으로 봤습니다. 동시에 큰 체격에는 2열 통로·시트 폭이 좁고, 3열은 무릎이 올라가는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1인 착석 후기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차 착석 후기 보기](#)

Drive Australia · 유보 2026.07.17

카시트 상부 고정 방식의 지역별 호환 이슈

호주에서 일부 카시트 브랜드의 상부 테더 호환 판단이 엇갈렸고, 연장 스트랩 등 제품별 지침이 안내됐습니다. 한국 규정·제품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카시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온라인 의견은 대표 표본이며 전체 여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매체·게시일·원문 링크는 아래 전체 출처에 함께 기록했습니다.

전체 출처

사실·분석·전망·루머·온라인 반응, 시각자료와 생성 이미지의 상태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유형	자료명	제공자·저작자	원문	날짜	라이선스·상태	사용 범위
공식 주문 페이지	Tesla Korea · Model Y 구성기	Tesla Korea	원문 보기	2026-08-03 확인 시도	공식 페이지 · 조사 환경 접근 차단	최종 가격·옵션은 사용자 앱과 주문계약서에서 재확인
공공 포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보기	2026-08-03 확인 시도	공식 공개 포털 · 동적 조회	국고·지자체 보조금 출고일 재확인
한국 출시 보도	테슬라, 6인승 Model Y L 국내 출시	디지털투데이 · 추현우	기사	2026-04-03	공개 기사 · Tesla Korea 사진 재배포 안 함	6,499만원, 한국 인증 주행거리·배터리·보조금
한국 가격 보도	출시 일주일 만에 500만원 인상	쿠키뉴스 · 김수지	기사	2026-04-10	공개 기사	6,499→6,999만원 가격 타임라인
한국 가격 보도	테슬라 또 가격 인상	한국경제 · 최수진	기사	2026-07-15	공개 기사	Y L 7,299만원, Y LR AWD 6,699만원, Y RWD 4,999만원
판매·시장 보도	상반기 EV 결산 · Model Y RWD 지배	블로터 · 조재환	기사	2026-07	공개 기사	가격 타임라인, Y L 6월 5,155대 보도
공식 제품 페이지	Tesla China · Model Y / Model Y L	Tesla	원문 보기	2026-08-02 확인	공식 공개 페이지 · 중국 사양	차체·좌석·공간 구조 보조 근거
독립 장기 시승	Model Y L is the plushest and most versatile Tesla yet	The Driven · Riz Akhtar	기사	2026-06-19	호주형 1주·800km 시승	효율·2열·승차감·3열 사용성
제3자 리뷰 종합	Early Chinese Model Y L reviews	Electrek	기사	2025-08-25	현지 리뷰 재인용	3열 공간의 반대 근거
지역 안전·호환성	Model Y L child seat problem partially solved	Drive Australia	기사	2026-07-17	호주 카시트 브랜드·당국 취재	카시트 상부 테더 호환성 점검 항목
한국 커뮤니티 반응	Model Y L 국내 출시 게시물·공개 댓글	기글하드웨어 · 째깍 외	원문 보기	2026-04-03	공개 댓글 4개 · 소표본	EV9 대비 가격경쟁력과 쿠팡형 실내 우려의 양면 반응
한국 실차 착석	Model Y L 1~3열 매장 체험	네이버 블로그 · 알고타	원문 보기	2026-05-16	1인 매장 착석 후기 · 장기 시승 아님	2열 편안함, 큰 체격의 통로·시트 폭, 3열 무릎 자세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2026-08-03 조회 기준	공식 법령 · 실제 등록일 적용 확인 필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 검수 기준
계산	가격·할부·기회비용 시나리오	AI Report 결정적 계산	보고서 내 식	2026-08-03	입력값 명시 · 금융상품 아님	800만원·11.0%, 70% 60개월 4/6/8%, 1,500만원 기회비용
공식 제품사진	Model Y L 측면 공식 제품사진	Tesla China · Tesla Digital Assets	원문 보기	2026-08-03 확인	공식 제조사 페이지 에셋 · 원본 권리 Tesla · 출처 표기	상세·간단 보기 실제 제품 식별용
공식 로고	Tesla 공식 워드마크	Tesla China	원문 보기	2026-08-03 확인	공식 사이트 SVG 심볼 · 상표권 Tesla	두들 인포그래픽 브랜드 식별용 · 비후원 독립 보고서
AI 생성 이미지	Model Y L 출고 결정 화이트보드 두들	OpenAI gpt-image-2-high	로컬 자산	2026-08-03	AI 생성 · 시각 검수 완료	가격·선택 조건·인도 전 검수 요약 · 공식 제품 이미지 아님